

十年만에 錦衣還鄉

서서국 철학박사 李灌鎔씨
십칠일밤에 경성에서 도라와

저자 미상

서서(瑞西) 『쭈리히』 대학에서 철학박사(哲學博士)의 학위를 바다 조선 청년 학사로 명성이 높힌 리관용(李灌鎔)씨는 십여년동안 형설의 공을 맞치고 오래동안 그리우든 고향에 다시 도라오게 되어 십칠일 오후 일곱시 오십분에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덩거장에는 씨를 그리워하든 **가족과 친우**가 다 수히 출영하얏는데 씨는 경쾌한 거문 양복에 중산모를 쓰고 마지러 나오는 사람에게 일々히 반가운 악수를 교환하여 동대문안 양사골씨의 자택으로 도라갓더라 씨는 일찍이 조선에서 관립 중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부립 데사 중학교(東京府立第四中學校)에서 수업하고 다시 조선으로 도라와서 법학전수학교(法學專修學校)를 졸업하고 일천구백십삼년에 집안 사람도 모르게 표연히 집을 쉰 후 혹 인도양(印度洋)거친 물결에 눈물도 뿌리고 아푸리가(亞弗利加) 불벳에 당하기 어려운 고생도하여 가며 처음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사학과(史學科)에서 근세 정치사(近世政治史)를 전공하다가 일천구백십륙년에 서서(瑞西)로 가서 『쭈리히』 대학 철학과(哲學科)에서 심리학(心理學)을 전공하여 일천구백이십년에 졸업하얏는데 졸업 논문으로 원지(原志)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철학박사의 학위를 맞고 일천구백이십일년에 독일로 가서 백림대학 자연과학과(柏林大學 自然科學科)에서 일찍이 세계 철학계의 거성(巨星) 『헷겔』의 데자 『플라트』 교수에게 동물학(動物學)을 전공하다가 금번 귀국하게 되엿더라.